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의 필요성 탐색-대학 무용교육 중심-

이나영(인하대학교 강사)

##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의 무용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도입의 필요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무용과 4학년 학생들 6명에게 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진로와 교육과정 구성의 관계, 진로상담의 실효성, 진로선택의 장애요인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면담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첫째, 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사회 변화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은 늘었으나 교수학습방법과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둘째, 진로와 교육과정 구성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친 실기교과 중심의 교육과정과 공연에 편중된 학교생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진로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발을 희망했다. 셋째, 진로상담의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지도교수와 진로상담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진로 정보라도 얻을 수 있는 통로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넷째, 진로선택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시간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영역간의 초연결, 속도, 창의적인 융합 능력에 적합한 무용계의 인재양성을 위해 무용직무와 그에 따른 능력개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무용직무와 능력개발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대학 무용교육과정과 현장이 연계된 개선이 필요하다.

Key word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학 무용교육과정, 진로

## I. 서론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변화에 급속도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주제로 제시된 후 부각되었다(WEF, 2016).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처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는 있었으나, 사회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이끌게 된 시기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있은 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또는 지능정보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대학교육에도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대학교육은 직업분야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체적인 운영을 필요로 한다. 사회의 전문화된 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는 이에 합당한 교육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구비해야 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대학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식추구와 함께 진로선택을 위한 고민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명숙, 2006). 특히 교육과정 편성은 학과의 철학적 근거를 내포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강무섭, 1990).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정도가 사회변화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장시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업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의 소재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의 상관성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손배원, 최진혁, 2015).

교육부는 2013년에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교육과정의 혁신과 질 관리 체제의 구축이 대학교육 혁신을 이끌 것이며, 교육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2013. 교육부). 현실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대졸자들의 능력과의 미스매치가 심각하고, 특히 특수능력 보다 인성과 성실성 등 일반적 능력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현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현장적합성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각기 다른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에 따른 교육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도입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 즉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갖춰야 할 능력을 의미하며, 직무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고 보급된 초기에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정도라는 인식이 전반적이었다. 그러나 청년취업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면서, 대학교가 학생들의 취업에 무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는 4년제 대학의 비중이 점점 확대 되고 있다(김현수, 2017).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고등교육기관들의 변화는 201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학계에서도 다방면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예술분야의 연구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대학의 무용과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의 무용과 교육과정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기 중심 교과목의 구성이 대부분이어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전공별로 위계화되지 못하고, 세분화되지 않은 교육과정의 구성이 대부분이다. 세 전공(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중심의 특성 없는 교육과정은 졸업생들이 뛰어들 현장의 이해가 반영이 되지 않은 무용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정의숙, 2007, P.304). 무용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연구진행 상

황은 몇몇 특정 연구자들만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대학무용교육 개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일 뿐이다. 그만큼 무용분야에서는 아직 생소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연구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정강우(2015)의 직무능력 개발기준 연구와 김보미의 대학 무용교육과정 분석(2016), 무용교육전문인 양성교육 인식 탐색(2017), 무용교육전문인의 직무유형과 책무탐색(2017) 연구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이외에 무용과 교육과정과 직무관련 연구로 김화숙(1992)의 대학 무용과의 체제 분석 연구, 임지형(2004), 박선희·조남용(2009)의 대학무용 교육과정 개발과 방향제시 연구, 이미연(2018)의 무용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연구, 나경아와 정윤경(2015), 서숙희와 이윤혜(2012)의 무용전공자들의 진로현황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대학무용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교육과정과 현장에 대한 심도깊은 다각도적인 분석이 미진하거나, 사례제시와 다른 분야의 모형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혹은 대학무용 교육과정이 무용실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문제제기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지만(정명지, 2011), 개선방법의 제안에 있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알리미사이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무용과가 개설된 전국 대학을 알아본 결과 45개의 대학이 있으며, 연간 1,500여 명의 무용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정명지, 2011, P.4). 국시립 전문무용단 단체는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전쟁터이며(조은숙, 2006), 이마저도 인지도 높은 콩쿨 입상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무용단으로 입단하는 극소수와 개인창작 활동을 하는 비율도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무용과 교육과정은 실기 교과중심을 벗어나기 힘들고 장시간을 실기 교과중심으로 교육을 받아 온 학생들은 다른 분야로 직업전환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데에도 장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직업무용수가 되지 못한 다수의 무용전공생들이 대학 재학 중에 다른 분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과 위축감을 느낀채 무방비하게 사회에 노출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직의 특성상 객관적인 정보부족으로 인해 직업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졸업을 목전에 앞두고서야 자신의 진로에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전공을 활용한 진로를 찾고 싶은 희망과는 달리 수요가 적은 무용 인력시장의 구인난을 뒤늦게 알게 된 졸업생들에게는 현실의 암담함을 피부로 더욱 절감하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는 상상 이상의 강도로 졸업생들을 괴롭히게 된다(강유리, 2006). 이와 같이 4차산업 혁명의 노선에 들어선 대학의 변화의 요구는 대학 무용과에도 예외가 없으며, 대학교육과정의 개선과 현장과 연계한 교과목 개설에 대한 요구와 이에 필요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춘 무용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무용과 학생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시대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무용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의 필요성을 탐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무용과 졸업예정 학생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을 알아 본다.

## II.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대학에서의 활용

###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념과 활용

##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념의 이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 기업은 경력이 좋은 직원을 뽑아도 직무수행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한 상태로 입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 재교육을 시키는데 시간과 경비를 재투자해야 하거나, 대졸자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무에 필요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동일한 내용의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따른 불만의 소리들이 커져갔다. 이와 같은 시대의 소리를 반영한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도입이다. 즉, 국가차원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직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조정윤 등, 2000, P. 18)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특징은 근로자가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직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행 능력을 포함하여 제시하게 된다. 모든 수행 능력에는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견비해야 하는 작업능력, 다양한 직무들을 계획 및 조직화하는 작업관리 능력,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 시 대처하는 돌발상황 대처능력, 책임맡은 직무관련 환경적 및 기술적 변화에 따라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능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업무에 따른 직무능력을 능력단위로도 도출하여 모듈(Module)형태로 개발을 하고 이 때 도출된 여러 개의 능력단위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개발하게 된다(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13-14).

##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 및 개발절차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은 준비기(2003~2007), 도입기(2008~2012), 정착기(2013~2020)의 3단계로 진행된다(주인중 등, 2004). 구성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뉘지며, 직무는 세 분류 단위에서 도출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이 세 분류 단위에서 개발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세 분류의 하위단위가 능력단위가 되고, 능력단위는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된다.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영역분류를 하는 단계로서 전 산업영역을 대영역으로 분류한 후 다시 세부영역으로 구분한다. 둘째, 처음 단계에서 분류된 영역별로 표준이 필요한 산업영역의 직무를 추출하고 분류하며 이 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세분화한다. 셋 째, 세 분류의 하위단위인 능력단위를 추출하는 단계이며, 세분화된 직무영역별로 요구되는 직무능력 내용을 추출하게 된다. 추출된 직무능력 내용은 가장 하위 단계인 능력단위로 분류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직무의 수준정도를 체계화하여 수준체계화 하였고,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의 연계, 평생학습능력 성취 단계 제시, 자격의 수준체계로 구성된다. 수준체계는 8단계로 구분되어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별 수준을 평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수준은 기초적인 일반지식의 사용하는 등의 단순·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수준부터 각 단계별 직무수준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현장 변화와 산업기술 고도화에 부응하는 직무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활용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은 “일자리중심 교육 3대 원칙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대학의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고 창의적 고등직업교육을 유도한다. “일자리중심 교육 3대 원칙 프레임워크”에는 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 교육과정 및 자격연계 프로그램 ② 교육성과(outcome)와 교육과정(process)을 병행 평가하는 체제 구축 ③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체제 확립으로 질 관리 강화가 있다(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2013. 교육부).

## 2. 대학 무용 교육과정

### (1) 대학 무용 교육과정의 목적

직무유형 기준에서 본 대학 무용 교육과정의 목표는 전문 무용가, 안무가, 공연 기획자, 교육자, 문화예술관련 관리자 양성에 있다(김보미, 2016).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변화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재편성 혹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정강우, 2015; 임지형, 2004).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도 융합교육 관련 교과목, 특성화를 위한 타 전공과의 연계과목 개설, 교육학 기반 교과목 개설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 개설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은 기초학문과 공연중심의 실기교육에 편중되어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귀형, 2004, 유미희, 2009; 정의숙, 2007). 특성 없는 비슷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한국무용, 발레, 현대 세 전공의 실기중심의 고착화된 전공분류로 인한 다양하고 세분화되지 못한 교육과정은 졸업생들로 하여금 관련기관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재교육을 위해 시간투자를 다시 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현장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 대학 무용 교육과정 구성의 문제점이다.

### (2) 대학 무용 교육과정의 구성

우리나라 대학 무용 교육과정은 공연분야의 실기 교과에 편중된 구성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김운미, 2015; 김보미, 2017). 무용전공자들이 희망하는 직업 순위 1위가 교사(초중고, 학원, 센터, 전문예술중고, 대학강사) 라는 결과(서정화, 김려경, 2016)와 연계해 생각해 본다면, 무용과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구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장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학생들 스스로 지식부족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위축감을 느끼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서숙희와 이운혜는 얘기하고 있다(2012). 김보미(2016)의 전국의 44개 대학 무용과 교육과정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분야별로 과목수(%), 교과목 예시를 표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Table 1)

Table 1.

분야	과목수(%)	교과목 사례
공연분야	1559개(69%)	한국무용1, 현대무용2, 발레3, 레파토리, 안무법 등
학문분야	397(17%)	예술철학의 이해, 무용심리학, 무용예술, 무용원론 등
교육분야	179개(8%)	무용교육론, 창의적 방법을 통한 무용 교수법, 발레 지도법 등
사업분야	61개(3%)	한국무용 기획제작 및 시연, 문화행사 기획, 무용 공연 기획 및 경영 등
기타	112(3%)	
교과목 수		총 2308개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purposive) 표집전략인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무용과 졸업예정인 4학년 학생들 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무용경력이 있으며,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진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로서 관련기업 인턴과정 경험이 있거나 학생회에서 학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 그리고 휴학하면서 사회경험을 해본 학생들로 선정했다.(Table 2 참고).

Table 2.

성명(가명)	성별(가명)	학년	무용경력	전공영역
A	김은주	4	10	현대
B	권나연	4	15	발레
C	김선아	4	13	발레
D	최진	4	15	발레
E	배슬기	4	12	한국
F	허은영	4	9	한국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한국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준비를 위해 조영인(2012)과 홍정화(2015)의 설문지를 토대로 대학무용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과정의 효율성, 교육과정 구성의 진로연계 여부 등으로 내용을 범주화 한 반구조 형식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의 내용항목과 중심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참고)

Table 2 심층면담 반구조화 질문 내용

내용항목	중심 내용
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와 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li> <li>• 무용과의 교육과정 과목 구성의 다양성</li> </ul>
진로와 교육과정 구성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과 졸업생들의 취업률</li> <li>• 교육과정과 진로와의 연계성</li> <li>• 융합관련 교과목의 필요성</li> </ul>
진로상담의 효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님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만족도</li> <li>• 지도 교수님의 진로에 대한 지도방법</li> <li>•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 방법</li> </ul>
진로선택의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선택의 장애가 되는 요인</li> <li>•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li> </ul>

### 3. 자료 분석

심층면담 자료의 내용은 영역 분석(domain analysis) 방법을 통해 무용과 예비졸업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들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현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4. 자료의 진실성 및 제한점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자와 교육과정 전문가 1인, 그리고 무용교육학을 전공한 무용과 교수 1인과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윤리준수를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면담내용의 용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면담 중에 녹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참여자의 의견이 모든 대학의 학생들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각 대학마다 교육과정이 약간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으로 모든 4학년들의 의견을 일반화할 수 없음을 밝히다.

## IV. 결과

대학 무용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직무표준능력(NCS)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용과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진로와 교육과정 구성의 관계, 진로상담의 효용성, 진로선택의 장애요인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면담 내용을 통해 국가직무표준능력(NCS)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무용과 4학년 학생들에게 1학년부터 지금까지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 구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면담 결과, 학교 측에서 각 학과의 특성화를 요구함에 따라 과에서는 교과목 이름만 들어도 궁금증을 일으키는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목과는 달리 교수자가 1~2차시 정도 관련내용을 강의한 후에는 다른 내용으로 아예 바뀌 버린다고 했다. 결국 교과목의 제목과는 전혀 다른 관련도 없는 수업을 수강하게 되고, 또 대체한 수업의 질도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목 제목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몇 차시 하시더니 교수님이 다른 내용으로 상관도 없는걸 강의를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된 건지 어쨌봐도 명확한 말씀을 안해주시고 다 연관이 있다시면서 아예 다른 과목을 가르치셨어요.”(김은주)

“어떤 과목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시는게 아니라 무슨 꿈나라 얘기하시듯 이상향을 말씀하시는 교과목도 있어요. 마치 저희와 다른 세계에 사시는 듯 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때로는 이게 이 과목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거 들으려고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권나연)

위 두 학생들이 들었던 교과목은 몇 학기 째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강의평가에 반영을 해봐도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며 후배들을 위해 건의를 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교과목을 수강하면 자격증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저희는 유아발레교육 강좌가 있는데 한 학기 수강을 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일부러 자격증을 따러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되니 시간도 절약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이니 일석이조여서 좋아요. 이런 실용적인 교과목이 더 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선아)

면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과반 수 이상인 5명이 모두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교과목 수강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았다. 무용교육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졸업 후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교사로 현장을 간다 하더라도 현장실습경험이 없어서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무용교육 관련 교과목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위계적으로 안배가 되면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텐데, 무용교육 관련 교과목을 한 번도 수강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4학년에서와서야 갑자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심화과정을 들으니 이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용어자체부터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니 강의 전반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해했나 싶으면 아닌거 같고.... 도데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은주)

이와 같이 관심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교과목의 실제 활용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수강하고 시험은 치르지만 현실적인 감각을 키울 수 없는 것이 문제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교과목에 대한 관심은 진로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관심인데, 진로에 대한 정보 역시 개인적으로 선배나 다른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학교에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공연 관련한 정보에 국한되어 있어 학교에서는 진로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다고 하였다.

## 2. 진로와 교육과정 구성의 관계

1번 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진로에 대한 언급을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 스스로 진로와 연관지어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들을 언급하여 2번 항목과 일정부분 중복되거나 연계되어 졌다. 무용전공 학생들이나 무용 실기교과가 비중이 많은 것을 틀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무용수나 안무가로 진로를 결정하는 졸업생의 비율은 높지 않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교사나 대학원으로 진로를 정하는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많은 실기시간에 불필요함을 호소했다. 그 시간에 생활에 필요한 교양을 쌓거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더 개설해주기를 희망했다.

“실기시간을 좀 줄여주고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용과이니 실기를 아예 안할 수는 없지만, 대학교에 공연하러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공연도 너무 많아요. 실기시간도 너무 많아서 마치 무용단에 입단이라도 한 것 같다니까요. 다른 것은 할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4년 보내고 졸업하고 직업 찾으려면 정말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래서 공연도 안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배슬기)

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특히나 공연이 많다고 한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연이 3학년 때는 4번이나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실기교과목 시간에도 공연연습으로 연계되어서 무용단원보다 더한 무용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진로와 교육과정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교과목인지 생각할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전문직종이 갖는 단점인 진로선택의 단조로움에 대해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고, 어떻게든 졸업하려면 이 과정들을 다 소화해야 하니 다른 건 생각 못한다고 했다. 졸업한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 답답한 심정이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인 공연 때문에 옆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한다.

“저는 실기쪽으로 진로를 결정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졸업을 위한 공연 아니고는 참여 못할 것 같다고, 그 시간에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보겠노라고 교수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언짢아 하시는 거 같았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저는 관심 밖이라 오히려 학교생활하기 편해요. 저 말고도 몇몇 아이들은 자기 개인에게 집중해서 이것저것 경험도 쌓으며 학교생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찌보면 아웃사이드로 보이겠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공연에 참가하며 교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한거라 나름 스스로는 만족하며 학교생활 하고 있는 애들이예요. 저도 슬슬 그렇게 노선을 잡아가고 있기도 하구요. 처음에는 공연하는 팀에 끼지 않으니 동떨어진 느낌이 낫설고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익숙해지니 자유롭고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것저것 경험도 하고....만족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학교생활을 게을리 하는 건 아니에요. 공연과 실기를 조금 멀리한 것 뿐이지. 공연과 실기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권나연)

무용과 학생으로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답이 없다. 그러나 공연중심으로 편향된 대학생활, 실기교과로 편중된 교육과정을 다 수료한 학생들이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딱딱뜨리게 되는 진로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도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면담 중에도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 3. 진로상담의 효용성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했다. 교수님과 진로에 대한 대화는 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화를 시도하려고 어렵게 자리를 마련하면 교수님의 일방소통식의 대화가 시간이 지나면 잔소리로 이어져, 그저 열심히 하라는 교과서 답안 같은 말씀을 듣고 온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마주치게 될 상황들을 리얼하게 듣고 싶어요. 무대위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관련 교과목이라도 개설을 해주시고, 명분만 내세운 교과목 개설이 아니라 퀄리티 높은 교과목과 강사선생님을 모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강의를 들으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물론 개중에 정말 열심히 좋은 강의해주는 분들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실망할 때가 더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무용이론 관련된 교과목은 그나마 수준이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교육관련하거나 다른 진로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수준은 글썽...권장하고 싶지 않은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진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진로 관련된 교과목이거든요.”(최진)

“저희 교수님은 공연 많이 뛰어보는게 공부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전 공연도 놓치고 싶지 않고 다른 교과목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공연이 많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적도 없구요. 진로에 대해서는 막연히 대학원을 갈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선생님 통해 들어보니 그 입장도 이해가 가고, 나도 그들과 같은 입장인데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이구나 싶은 내용들도 많았어요.”

(허은영)

학생들은 지도 교수님과 소통을 자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나 방안 혹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조차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4. 진로선택의 장애요인

진로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시간과 경제적인 이유였다. 학교생활과 잦은 공연, 그리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생들은 어느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살고 있었다. 요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특히 더 바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학교생활 외에 공연이라는 큰 행사를 자주 치러야 하는 무용과 학생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아 얘기했다.

“진로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자문을 받거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음 좋겠어요. 어떤 학교에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거 같아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물어보니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 역할을 안해주실거면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시면 그거라도 감사할 것 같아요.”(최진)

심층면담을 한 결과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예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절실함으로 표현되었다. 미래를 준비할 사이도 없이 그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학년이 되니 내쫓기듯 나가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황당하다는 학생들이었다.

교육과정의 구성은 과거와 크게 변화한 것이 없으며, 새로운 교과목은 개설이 된 것 같으나 교수학습방법은 그에 맞춰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용과의 특성상 실기교과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나 공연이 학교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예상외로 컸다. 특히 현장실무경험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이에 필요한 교과목 신설이 절실하다고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즉, 현 시대변화에 적합한 무용전공자가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절실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연관련 전문가만을 원할까? 시대에 따른 정체성 재확립이 필요하다. 전공을 연계한 창의적인 혁신프로그램 운영과 다학제적 지식 습득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현 시대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무용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도입의 필요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예정인 대학 무용과 4학년 학생들을 의도적(purposive) 표집전략인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영역 분석(domai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무용과 예비졸업자들의 교육과정 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들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심층 면담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첫 째, 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사회 변화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은 늘었으나 교수학습방법과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둘째, 진로와 교육과정 구성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친 실기교과 중심의 교육과정과 공연에 편중된 학교생활에 대한 개선과 진로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발을 희망했다. 셋 째, 진로상담의 효용성은 거의 제로라고 느끼고 있었다. 지도 교수와 진로상담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진로 정보라도 얻을 수 있는 통로마련을 요구하였다. 넷 째, 진로선택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시간이라고 하였다.

진로에 대한 무용과 예비 졸업자들의 걱정은 배수을(2016)의 취업률 조사결과에 드러난다.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 평균 41.4%를 차지하고 이 중에 무용은 29.7%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 면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무용과 예비졸업생들은 진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 하는 하고 있지만, 실기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분위기에 수동적인 생활을 해서인지, 일반적으로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서 진로계획 짜기, 인생의 목표 설정하기 등에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김혜정, 강유리, 2008). 면담 참여학생 중 한 학생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발레만 했어요. 정말 오직 발레만 했어요. 정말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직업을 찾으려요. 갑자기 주동적으로 살려니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라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눈을 하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얘기했었던 학생이 있었다. 그러나 비단 이 학생만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다. 김혜정과 강유리(2008)의 연구결과와 같이 한 가지 전공에만 집중된 삶을 살고, 성인이 되어서도 실기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던 학생들에게 갑작스럽게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사회는 두려운 곳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학에 와서라도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이 학생과 같이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된 어린아이와 같은 절망감은 안들 것이다. 대학 무용과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교과목의 다양한 재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채주희, 2008: 10). 교과목의 제목만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질적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서숙희, 이은혜, 2012).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영역간의 초연결, 속도, 창의적인 융합을 위한 무용계의 인재양성을 위해 무용직무와 그에 따른 능력개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무용직무와 능력개발을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에 기반한 대학 무용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 VI. 참고문헌

- 강무섭(1990).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교학사.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부(2013).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보도자료. 교육부 대학정책과.
-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 김혜경(2008). 무용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연구. 예술교육연구, 6(1), 19-27.
- 김현수(2017). 4년제 대학 NCS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he HRD Review, 20(6).
- 김혜정, 강유리(2008).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국무용학회지, 8(2), 57-64.
- 배수을(2016). 사회수요 맞춤형 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근거하여. 무용예술학연구, 59, 1-19.
- 박승철(2015). 한국대학 어디로 가야하나?, 대학교육, 제 193호.
- 백성기(2016).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혁신방향(최종보고서). 교육부.
- 서숙희, 이은혜(2012). 대학 무용(학)과 현장연계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 조사. 한국무용연구, 30(1). 37-58.
- 서정화, 김려경(2016). 무용 전공자의 취업전망에 관한 고찰. 한국무용연구학회지, 146-154.
- 손배원, 최진혁(2015). NCS를 활용한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인사관리학회지, 1, 10-19.
- 송지영, 김선화(2016). 전문대학 시각디자인과의 캠퍼스디자인을 통한 직무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183-192.
- 임지형(2004). 대학무용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제시에 관한 고찰. 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 제5집, 15-41.
- 정명지(2011). 융복합 교육에서 대학 무용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주요 선진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동향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해외 ICT R&D 정책동향.
- 정의숙(2007). 공연현장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위한 국내 무용학과 커리큘럼 개선방안 연구, 무용학회논문집, 52, 303-326.
- 조은숙(2006). 무용학과 의 전문교육과 취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7(2), 1-14.
- 조정윤·박종성·김상진(2000), 국가직무능력표준 체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인중·김덕기·박종성·반동열(2004).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2004):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침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주희(2008). 대학 무용학과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laus, S. (2016). The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EF Forum 2016.
- WEF.(2016). The Future of Jobs,